

키워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터미널,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
- 신축 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새집증후군 관련)을 측정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현황을 알리도록 의무화
- 대중교통차량: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 대중교통차량 이용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의 예방 관리

○ 「학교보건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 학교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유지 및 관리기준과 환기 관리기준을 설정



이동합니다



■ 일부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2026년부터 $40\mu\text{g}/\text{m}^3$ 로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mu\text{g}/\text{m}^3$ 에서 $40\mu\text{g}/\text{m}^3$ 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며,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약칭: 실내공기질법)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양시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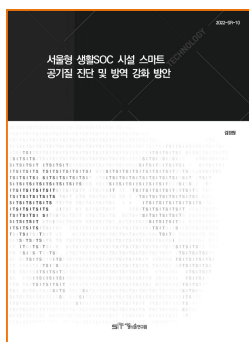
보도자료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실내공기질 촘촘하게 관리한다 (한국개발연구원, 2025. 1.)

인천시, 다중이용시설·지하철 실내공기질 상태는 ‘맑음’ (인천시, 2025. 4. 9.)

고양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고양시, 2024. 12. 17.)



연구자료

서울형 생활SOC 시설 스마트 공기질 진단 및 방역 강화 방안

서울연구원 김경원



참고자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은 관리 카드뉴스

환경부